

KOICA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독일 정부 원조기관인 GIZ,
삼성전자와 협력해 여성 전자정비사를 육성하는 직업훈련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 참여한 학생들은 기술 연수 뿐만 아니라 현지 삼성전자 매장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되며, 엔지니어링 분야의 여성 리더로 성장한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OVERSEAS KOICA 가나, 엔지니어링 분야의 여성 리더를 키우다
WHAT'S ODA 취약계층 보금자리 짓는 '스마트 설계 프로그램'
KOICA STORY 순직한 코이카人 이름 딴 케냐의 '나현 스쿨'

지구촌 가족

2017. Summer
Vol. 5
World's Friend KOICA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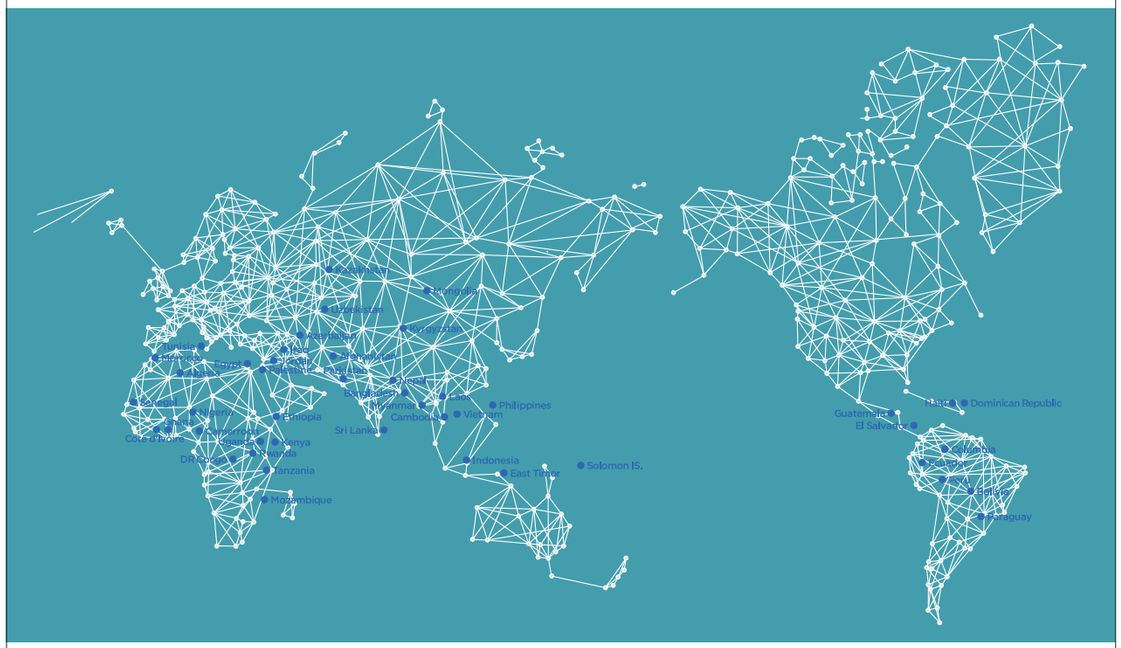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NK ODA, WITH KOICA
WWW.KOICA.GO.KR

ABOUT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대외무상 원조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ODA 사업을 실시하고자 1991년 4월 외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KOICA를 설립하였습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OICA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국제기구협력 등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OICA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NGO, 기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ICA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환경, 인구, 질병, 인권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양성과 우리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TENTS

2017. Summer / Vol. 5

OVERSEAS KOICA
세계 속 코이카

04
가나 전자정비 분야 여성 직업훈련사업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여성 리더를 키우다

06
인도네시아 IT 행정 역량강화사업
스마트 정부 구현에 초석을 놓다

08
스리랑카 해양대학교 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사업
바다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다

10
난민 어린이에게 태권도 가르치는 이세종 단원
세상을 향해 자신감 갖게 희망의 발차기 앱!



WHAT'S ODA
ODA 알아보기

14
루미르의 인도네시아 고효율 램프
서민들에게 값싸고 더 밝은 빛을 주다

16
㈜글로리바이오텍의 휴대용 에이즈 검사기기
값싸고 간편하고 정확하게 진단한다

18
스페이스워크의 '스마트 설계 프로그램'
베트남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짓다

20
SDGs 13번째 과제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22
SDGs 14번째 과제
'바다와 대양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전'

24
SDGs 15번째 과제
'육상 생태계 보호'





KOICA STORY
코이카 이야기

26
KOICA의 26년 브랜드 파워
'ODA 플랫폼'

28
순직한 코이카人 故 나현 팀장의 이름으로
케냐에 '나현 스쿨' 들어서다

World's Friend
KOICA

발행인 최성호 **등록일자** 1994년 12월 5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17-04-062
발행일 2017년 7월 10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462-833)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코이카 홍보실 **제작**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조광프린팅

코이카 뉴스레터 〈지구촌가족〉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은 대한민국의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정부출연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KOICA-GIZ-삼성전자의 가나 전자정비 분야 여성 직업훈련사업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여성 리더를 키우다

2015년부터 가나에서 시작된 여성 전자정비사 육성 과정이 올여름 마침내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여성의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전자정비 분야의 결실이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 이 사업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글 정현정(가나사무소 영프로페셔널)

가나 전자정비 분야 여성 직업훈련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7년 4월호 '세계 속 코이카'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704/content2.php?code=201704_010210





3년 과정 개설…
올여름 첫 번째 졸업생 배출

현재 가나는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 중산층의 확대로 전자제품 관련 분야 고용이 새로 창출되고 있으나 관련 분야 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은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등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 직업훈련원 역시 재봉, 조리, 미용과 같이 여성의 전형적인 역할에 치우치는 교육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들에게도 전자제품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독일국제협력공사(이하 GIZ), 삼성전자는 2015년 민관협력으로 가나의 4개 직업훈련학교에 여성 전자정비 분야 3년 과정을 개설해 졸업생들을 공인 여성 전자정비사로 육성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드디어 올여름, 그 첫 번째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있다.

전자정비는 여성의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분야로 단순 여성 전자정비사를 배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모든 엔지니어 분야에 여성도 진출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삼성전자가 후원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 많은 여학생들은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성도 할 수 있다(What men can do, women can do better!)"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01 가나 전자 분야 여성 직업훈련사업에 참가한 학생이 전자정비 수업을 듣고 있다. 돈보스코 직업훈련원(Don Bosco Vocational Institute in Sovie)

02 인턴십 프로그램을 앞두고 은행 담당자가 학교로 방문하여 학생들의 예금통장 개설을 도와주고 있다.

"종잣돈으로 써라"… 인턴 급여, 통장 만들어 지급

8주간의 인턴십은 학생들에게 전자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전자제품 정비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 역량까지 갖춘 여성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으며, 삼성전자 역시 인턴십 기간 동안 제품 판매량이 증대했음은 물론 현지 시장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의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인턴십 후 학생들은 드림어카운트(Dream Account)라 불리는 생애 첫 통장을 갖게 되었다. 인턴십 급여를 개인 통장으로 지급해 미래를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이 드림어카운트를 바탕으로 졸업 후 학업을 지속하거나 개인 전자정비소를 개업하길 희망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혁신적 민관협력 사업모델

전자 분야 여성 직업훈련사업(Capacity building of female professionals in Ghana electronics)은 직업훈련의 전문성을 가진 GIZ와 현지 시장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삼성전자와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금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는 달리 삼성전자의 현지 기업전략(서비스 정비인력 확대수요)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기능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과 현지 우수인력 확보를 모두 충족하는 혁신적인 민관협력 사업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민간 전문성과 개발 전문성의 결합이라는 사업모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6년 대한민국 글로벌 CSR부문 산업통상부 장관상과 독일 정부에서 수여하는 2016년 젠더프라이즈(Gender Prize)를 수상했다.



KOICA의 인도네시아 IT 행정 역량강화사업 스마트 정부 구현에 초석을 놓다

인도네시아를 이루는 수많은 섬들. 그 신비한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물리적 거리'라는 실질적 고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스마트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의 도움을 얻어 '스마트 행정'을 꾀하고 있는 것.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KOICA, 현지 첫 공무원 IT 교육센터 인증 지원

최근 인도네시아의 섬을 배경으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다시 한 번 인도네시아의 섬들이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섬들 간의 물리적 거리에서 나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해 공무원들의 IT 역량강화에 힘썼으나, 분권화된 부처 체계와 관련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중앙부처 주도의 표준화된 교육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KOICA는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산하에 BPPTIK센터(ICT교육센터) 건립을 지원했으며, 이후 2013년부터 'IT 행정 역량강화사업(2013~2017/370만달러)'으로 BPPTIK센터를 활용하여 중앙 및 지방 공무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정책과 IT 기본활용 역량강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해왔다. 체계적인 역량진단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역량교육'으로 성과 위주의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 이바지했다.

특히 이 사업의 현지 연수 성과를 기반으로 BPPTIK는 2015년 12월 국가행정원(LAN)의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 최초의 공식 공무원 대상 ICT교육센터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센터에 대한 예산규제조항(PNBP)도 풀려 민간 기업 대상 유상교육도 가능해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체적인 운영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에 IT 노하우 전수도

아울러 현지 연수의 성과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주도로 동티모르 IT 담당 공무원 30명을 초청하여 BPPTIK센터에서 교육하는 인도네시아-동티모르 남남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일방향적인 협력에서 벗어나 제3국에 전수하는 시도도 있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부와의 협력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지역 내 IT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01
BPPTIK센터 전경.
02
현지 연수 최종 성과공유 워크숍 참가자들.
03
강사의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연수 참가자.

지난 2월 21일에 있었던 이 사업 현지 연수 최종 성과공유 워크숍에서 오기윤 인도네시아사무소장은 결코 쉽지 않았던 사업 초기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당초 KOICA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BPPTIK센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공무원 대상 IT 교육은 절실했지만 관련 제도와 경험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를 시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와 여러 날을 고민하고 협의한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아울러 대규모로 고위급에서 실무급까지 전자정부의 필요성과 기초 IT 교육을 진행, 스마트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저변을 갖출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그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BPPTIK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 IT 역량강화를 위해 경주하여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KOICA의 관심과 협력에 감사"

바수키 유수프 이스칸다르(Basuki Yusuf Iskandar) 정보통신부(KOMINFO) 차관보는 이에 화답하여 이 사업의 성과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BPPTIK센터를 활용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개발된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 및 시스템의 지속적 운영과 이용을 위해 국가행정원 등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전자정부 및 IT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와 KOICA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KOICA 인도네시아사무소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향후 정보통신부 BPPTIK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이 사업에서 개발한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성과 관리방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에 적극 협력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 사업의 다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연수를 받은 공무원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전자정부 정책과 IT 기술 등을 잘 전수해서 스마트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데 힘써주기를 희망한다.

글 장어진(인도네시아사무소 영프로페셔널)

KOICA의 스리랑카 해양대학교 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사업

바다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다



해안선이 약 1770㎞에 달해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스리랑카.
그러나 그 자원을 개발하고, 해양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 체계는 아직 초보 단계다. 이를 위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가
나섰다. 스리랑카 해양대학교 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KOICA와 스리랑카 정부의 의미 있는 협업을 살펴본다.



인류의 도전과 희망 '바다'

세계는 바야흐로 육지의 시대에서 해양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일찌감치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제3의 물결'에서 해양과학기술(MT · Marine Technology)을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바다는 신천지며, 소리 없는 전쟁터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제국까지, 역사상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는 세계를 지배해왔다. 오늘날 내륙국가인 스위스가 세계 제2위 해운회사를 보유하고, 남중국 센카쿠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의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된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해양은 국가 경쟁력을 대변한다.



해양산업에 높은 경쟁력 갖춘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해안선이 약 1770㎞에 달해 해양자원이 풍부하며,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 국토의 약 8배에 달하는 51만7000㎢ 규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 Economic Exclusive Zone)을 보유하고 있다. EEZ 외곽에서는 국토의 약 23배까지 EEZ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지정학적으로 인도양 해상물류 경로를 따라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연결하는 물류 허브 국가로서 부상하고 있으며, 각종 해양산업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중국에서 육상과 해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잇는 길) 정책에서 스리랑카를 인도양 거점국으로 지정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스리랑카 정부도 자국을 인도양의 해양 · 해운 · 수산 산업 분야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스리랑카 해양대학(Ocean University of Sri Lanka)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학을 설립했다.
그러나 해양자원을 국가경제에 유용하게 개발하고 이용 · 보존하며, 해양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 체계는 아직 초보 단계다. 그 결과 유용한 해양자원이 저부가가치로 이용되고 해양산업이 노동집약형 산업에 머물러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해양산업에 대한 산업적 인식 또한 미비하며, 국제협력 부재 등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해양 · 수산 · 해운 분야의 고등교육 전문인력과 연구시설이 부족하고, 대학에도 교수는 물론 교육 기자재 · 강의실 등 인프라 여건이 열악해 교육의 질이 낮은 상태다. 자국 선박도 없어 대부분 외국 해운회사에 고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적 선사의 육성과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KOICA, 스리랑카 바다를 풍요롭게

KOICA는 제2의 싱가포르를 장기적인 발전모델로 상정하고 해양 분야에서 발전을 모색 중인 스리랑카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스리랑카 해양대학교 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의 시급 사안이면서 현실투자 필요성이 큰 일자리 창출 및 외화 획득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해 스리랑카 해양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공학 · 수산 및 해양과학 · 해운관리 등 3개 단과대학과 7개 학과 설립에 필요한 건축물, 교육 · 실습장비를 지원하며,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해양 · 수산 · 해운 등 산업별 개발 현황과 잠재력, 국가경제 기여도, 전후방 연관 효과, 주변 경쟁국과의 이해관계,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스리랑카가 서남아시아 해양산업의 허브로 성장하고, 국가 위상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이동구(스리랑카사무소 소장)

난민 어린이에게 태권도 가르치는 이세종 단원
세상을 향해 자신감 갖게 희망의 발차기 얍!



UNHCR이 지난 4월 발표한 요르단 내 등록된 시리아 난민 수는 65만7621명. 난민캠프 거주인원 중 78%는 여성과 아동이다. 특히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라 불리는 난민 아이들은 그들의 나라뿐만 아니라 꿈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태권도 교육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자 하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 111기 이세종 단원을 만나본다.


01

Q_간단한 자기소개 및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 참여 동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르단 자타리(Zaatari) 난민캠프에서 태권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세종입니다. 이전에 1년간(2014~2015) 본 캠프에서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KOICA 봉사단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보람을 느끼고, 태권도 교육에 대한 철학을 견고히 할 수 있던 것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축적한 경험, 철학 등을 활용하여 난민들을 위한 태권도 교육에 힘쓰고자 합니다."


02

Q_자타리 난민캠프와 담당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 립니다.

"자타리 난민캠프는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2012년 7월 문을 연 곳으로, 요르단 북부 시리아 국경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약 8만3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아동 · 청소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난민캠프이며 유엔 난민기구(UNHCR)와 요르단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요르단 사회개발부 산하 KRP(Korea Refugee Project)기관에 소속되어 기아대책(KFHI)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7~20세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단원 현장사업으로 '자타리 태권도 아카데미 청소년 심신단련 체육시설 설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3

01 태권도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녀.
02 이세종 단원이 아이들에게 줄을 세우며 질서교육을 하고 있다.
03 동생 이만(Iman)이 심사에 떨어져 속상해하자 오빠 모함마드(Mohammad)가 재심사를 볼 수 있도록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Q_'자타리 태권도 아카데미 청소년 심신단련 체육시설 설립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캠프 내 청소년들이 심신단련을 통해 건강을 키우고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육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철봉, 통나무, 평균대, 사다리 등 12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권도 아카데미 학생들뿐 아니라 캠프 내 12개 공립학교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 건강관리 홍보책자 제작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캠프 내 공립학교 위탁교육' 같은 경우, 태권도 교육의 가치를 인정한 주변 공립학교와 NGO 단체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존에 태권도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교관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각 학교 측으로부터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교육할 예정입니다."

Q_태권도 교육은 정규 교육보다는 비정규 교육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난민캠프 내 비정규 교육으로서의 태권도 교육의 필요성과 강점을 설명해주세요.

"자타리 캠프 내에는 주재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12개의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수 부족, 교사 역량 부족, 그로 인한 낮은 만족도와 중도 탈락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난민 학생에게 교육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태권도 교육이 정규 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분야이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에 인재 양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이 병행되기 때문에 질서 확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태권도 교육을 받은

글 · 사진 요르단사무소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인사·질서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난민 캠프 내에서 아이들이 돌 던지는 모습, 총 쏘는 시늉을 하는 모습, 싸우는 모습 등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전쟁 트라우마와 교육의 부재로 생긴 부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태권도 겨루기 등의 활동으로 긍정적 해소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쟁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규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은 주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거나 노동현장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비정규 교육으로서 태권도가 가질 수 있는 강점입니다.
또한 태권도 아카데미가 '국제학교'로 승격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Q_자타리 난민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 태권도 시범을 통해 태권도의 강함, 유연함을 체험해 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태권도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 것이 질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태권도라는 매개체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기관장님, 현지 교관, 팀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_반대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이 태권도 시범을 통해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좋아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가장 빛이 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하고요. 현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실제로 한 아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고위관계자 앞에서 스스로 태권도 시범을 보인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 부모님이 정말 뿌듯해하셨고 덩달아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Q_한국인들에게 난민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천할 만한 난민에 관한 책이나 영화가 있나요?

"자타리 난민캠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After Spring'을 추천합니다. 제가 찬조출연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캠프 내 난민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태권도 교육까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8일 요르단 '4th edition–Sheffield Film Days in Amman'에서 상영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셨습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영화에 출연한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 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Q_KOICA 단원으로 ODA 사업에 참여하면서 요르단 혹은 난민, ODA, 봉사활동에 대한 관점이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선, 이전에는 봉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은 내가 주도하여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함께한다는 의미가 더 크더군요. 주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될 때 봉사활동의 의미가 커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ODA에 관해서는, 국내 교육 시 월드프렌즈 봉사단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나라도 한때 ODA의 수혜자였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지금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도국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마지막으로, 난민 아이들을 영양이 부족하고 약한 존재로만 상상했습니다. 태권도 수련이 가능할까 의구심도 들었고요. 실제로 만나 보니 아이들이 에너지도 넘치고 정신력도 강하더라고요. 또 난민들은 전쟁 트라우마와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01
태권도 수업을 마치며 아이들과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02
승급심사 후 승급한 태권도 아카데미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03
히잡을 쓰고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다.
04
아카데미 관리인과 인부들이 하나가 되어 현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05
이세종 단원(윗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기관장 및 자원봉사자들, 시리아 현지 교관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Q_이세종 단원에게 난민이란? 다섯 글자로 정의해주세요.

"'슬픈 개척자'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새롭게 다시 일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Q_추후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고 '난민들을 위한 태권도 교육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태권도 교육의 지속성, 자립성을 고려했을 때 그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10월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고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어디에 있든 태권도 보급에 힘쓰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자타리 캠프는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후원할 예정입니다."

||| KOICA의 CTS 사업, 개발도상국의 밤을 밝히다



루미르의 인도네시아 고효율 램프 개발 및 보급 사업
서민들에게 값싸고 더 밝은 빛을 주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은 여전히 촛불과 전통식 등유램프에 의존해 어둡게 생활하고 있다. '촛불 하나로 방 전체를 밝힐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루미르의 도전.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수요에 가장 부합하는 제품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는 루미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인도네시아의 전체 전력보급률은 86.39%로, 인근 아세안 국가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보르네오(Borneo)섬에 위치한 칼리만탄(Kalimantan) 지역은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전력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강과 산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으로 전력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루미르는 현지 주민들의 생활패턴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고효율 열전램프 '루미르(Lumir) K'를 통해 이들에게 빛을 선물하고자 한다.





주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용유를 연료로

현지 주민들이 어디서나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식용유'로 연료를 대체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양초보다 전통식 등유램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립된 지역에서는 등유 구입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운 날씨로 인해 튀긴 음식을 주로 먹는 특성상, 식용유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고립된 지역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루미르 K는 오랜 시간 사용해온 전통식 등유램프와 사용 방법이 유사하여 제품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

1L로 200시간 사용… 소득증대 기여

현지 주민들은 보통 수입의 최대 30%를 연료 구입에 소비한다. 루미르 K는 기존 등유램프 대비 단 20%의 연료로 2.5배의 밝은 빛을 낼 수 있다. 즉 식용유 1L로 약 20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연료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반영구 제품이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매번 주기적으로 기존 조명 제품의 배터리를 교체해야 했던 현지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등유램프는 지구온난화와 호흡기질환의 주범인 블랙카본을 매년 27만t을 배출한다. 이는 약 2억4000만t의 이산화탄소에 상응하는 양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중 블랙카본 배출 국가 3위로, UN의 인도네시아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루미르 K는 불완전연소를 감소시켜 일반 등유램프보다 블랙카본 배출량을 88% 줄였다. 이를 통해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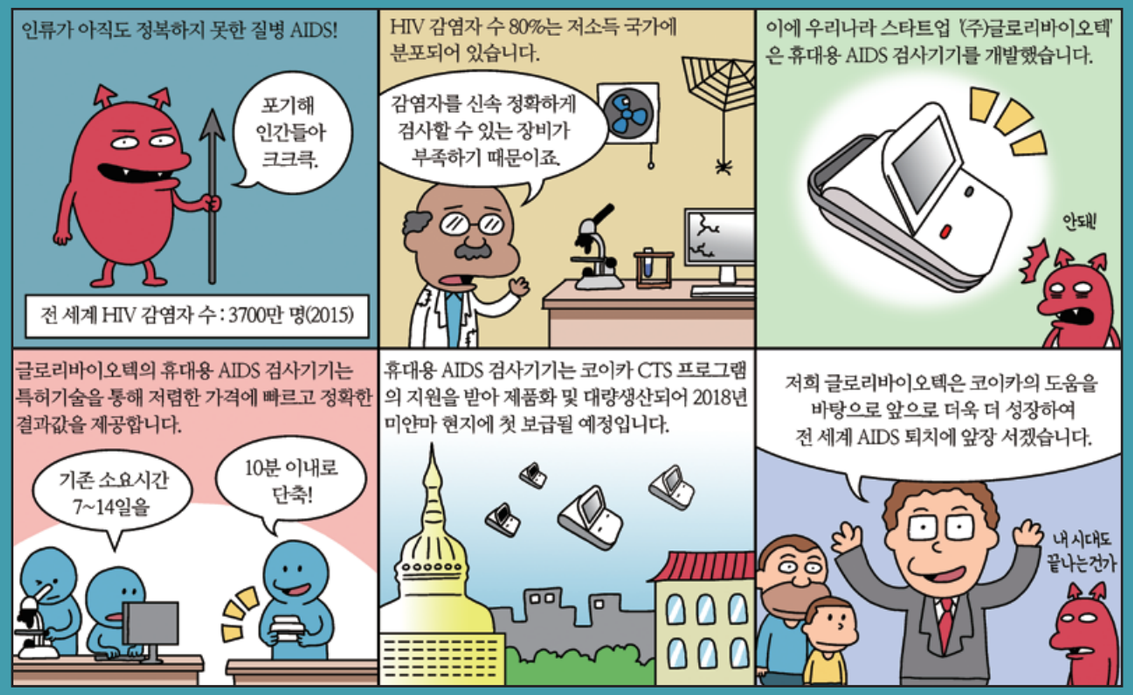
01
코이카 CTS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루미르의 고효율 램프 '루미르K'가 올해 인도네시아 현지조사를 마치고 보급을 앞두고 있다.
02 03
전통식 등유램프와 사용 방법이 유사하면서도,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루미르K'는 현지 주민들의 사정에 꼭 맞는 적정기술 아이템이다.

루미르, 지난해 KOICA CTS 프로그램에 선정

루미르는 2016년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창의적 가치창출(CTS ·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1차 현지조사를 마치고 제품 보완 및 1차 보급을 앞두고 있다. 총 2차례의 보급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개선된 최종 제품을 올 하반기에는 시범 판매할 예정이다. 이처럼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루미르의 노력은 KOICA의 도움으로 순항 중이다.
올 한 해 칼리만탄 지역에서 성공적인 현지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추후 인도네시아의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그 후로도 전기가 부족한 전 세계 13억 명에게 빛을 제공하기 위한 루미르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글 최수인(㈜루미르 해외영업 매니저)
만화 홍세훈 작가

||| KOICA의 CTS 사업, 에이즈 퇴치에 한발 더 다가서다



㈜글로리바이오텍의 휴대용 에이즈 검사기기
값싸고 간편하고 정확하게 미얀마 HIV 퇴치에 앞장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HIV 유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HIV 감염자가 22만명에 달한다. HIV 감염은 추후 에이즈로 발전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검사와 적합한 치료가 시급한 상황. 이를 위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글로리바이오텍과의 협업을 통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에이즈를 검사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자 수는 3700만명이며 이 중 80% 이상이 저소득 국가에 분포해 있다. 그러나 주로 사용되는 검사 장비는 고가의 장비이며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고 실험실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저소득 국가에서는 HIV 감염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KOICA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창의적 가치창출(CTS ·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사업의 하나로 휴대용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에이즈) 검사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HIV 신속 검진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HIV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HIV 보균자가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HIV는 성관계, 수혈, 혈액제제 등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와 인체 면역을 담당하는 CD4양성 T세포를 파괴하여 에이즈의 원인이 된다. 수개월부터 10년의 잠복기간을 거치면서 CD4양성 T세포 수가 200 cells/㎕ 이하로 감소하면 에이즈로 분리된다. 따라서 에이즈로 질병이 발전하기 전, HIV 보균자에게 적합한 치료와 검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노필터 시스템으로 백혈구 분리하는 특허 기술

스타트업 기업인 ㈜글로리바이오텍은 나노필터 시스템으로 백혈구를 분리하는 특허 기술을 이용해 휴대용 CD4 검사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기존 CD4 검사기기보다 저렴하며 측정 속도가 빨라 다양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저소득 국가들의 HIV 및 에이즈를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WHO에 따르면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HIV 유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HIV 감염자가 22만명에 달한다. 현재 국제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에서 HIV와 에이즈 억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검사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6년 11월, (주)글로리바이오텍은 KOICA CTS 사업 현지 사전 조사를 위해 미얀마를 방문했다. 미얀마 보건당국과 유엔에이즈계획과 아시아병원연맹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얀마의 HIV 및 에이즈 검사 시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얀마 전체에 Viral Load 검사기기가 3대밖에 없으며, 현재 휴대용 CD4 검사장비가 나와 있으나 정확도 등의 문제로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기존 CD4 검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글로리바이오텍은 휴대용 CD4 검사기기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얀마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 2018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KOICA는 글로리바이오텍의 창의적 기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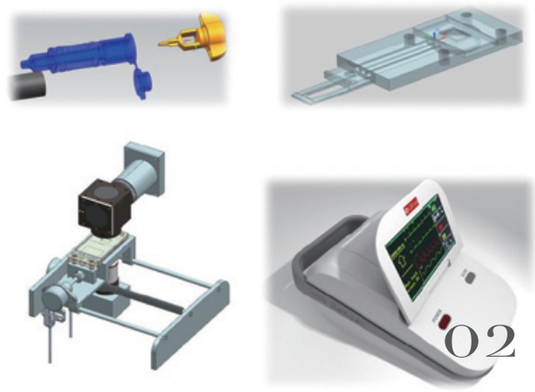
㈜글로리바이오텍의 개발 장비는 저소득 국가에 특화된 검사기기다.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제품 개발과 관련된 특허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화 · 대량생산 · 현지 사업화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KOICA는 CTS 사업을 통해 글로리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의 제품화와 대량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얀마 HIV 감염자 22만명을 비롯해 저소득 국가에 있는 HIV 감염자에게 충분한 검사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사업 분야에서 보편적 인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KOICA와 글로리바이오텍이 미얀마에서 시작하는 창의적인 시도가 앞으로 개발도상국 HIV 환자에게 희망의 꽃을 피워 나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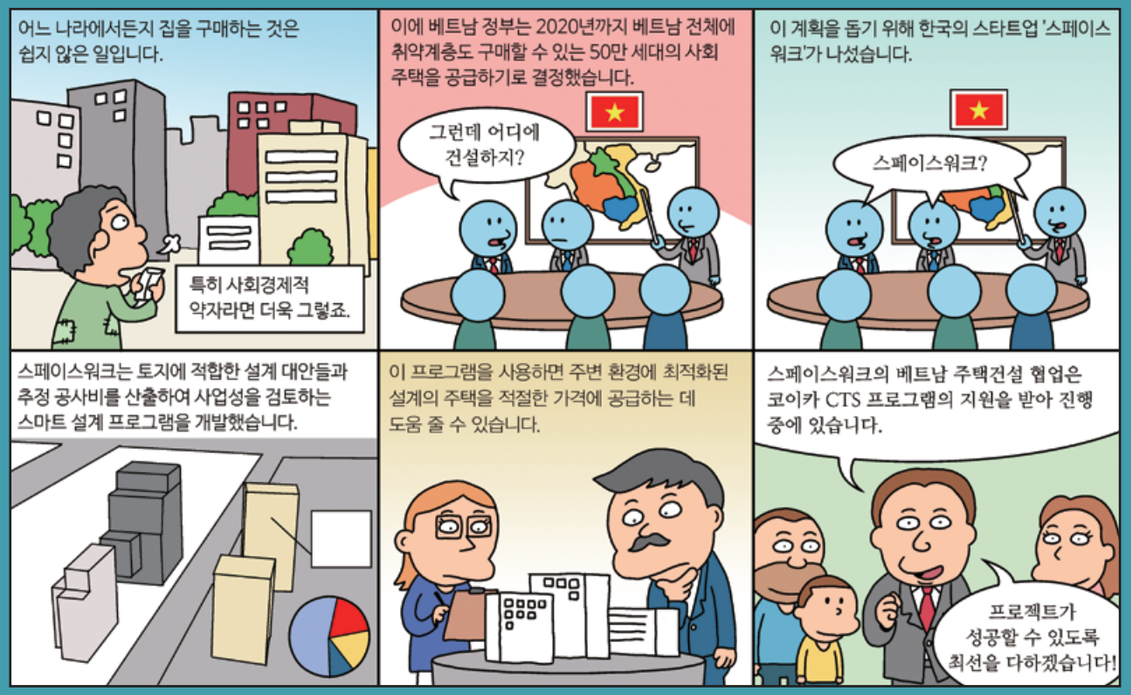
01
지난해 11월, 미얀마 UNAIDS에 방문한 (주)글로리바이오텍 개발팀.

02
나노필터 시스템으로 백혈구를 분리하는 특허 기술을 적용한 휴대용 CD4 검사기기. 1ul의 혈액으로 나노필터 여과 시스템을 통해 백혈구를 분리하여 10분 안에 CD4, CD4비율, CD4/CD8 비율을 측정할 수 있다.



글 성연문(㈜글로리바이오텍 대표이사)
만화 홍세훈 작가

||| KOICA의 CTS 사업,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짓다



스페이스워크의 사회주택 개발 '스마트 설계 프로그램'

베트남에 50만 세대 공급 예정 경제적 약자들에 '문턱' 낮춘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 베트남 전체에 약 50만 세대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불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이를 위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는 스페이스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정부 기관 및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최적화된 주택 솔루션 내는 스페이스워크사의 노하우

스페이스워크(Spacewalk)는 토지를 효율적·효과적으로 계획–개발–운영하기 위한 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 투자자문·Robo–advisor)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스페이스워크가 공간 자원의 이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두 가지 기술은 첫째, 유효 대상지 탐색과 둘째, 건축계획 최적화 인공지능이다. 유효대상지 탐색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발이 필요한 대상지를 찾는 것이다. 건축계획 최적화 인공지능이란 정답이 없는 건축계획분야에서 발견법에 기반해 주어진 시간에 최적화된 답을 탐색하는 것이다. 스페이스워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1차 정책제품인 '가로주택정비화사업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공급했으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기존에 2주~1달 정도 소요됐던 사업검토 시간을 실시간으로 가능케 했다.

공간을 개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인간의 생활양식, 법규 및 정책, 세금, 자본 조달 등 다양한 요소들의 균형점을 맞춰야 한다. 스페이스워크는 기술 혁신에 기반하여 균형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수요 맞추기 위한 공급 시스템이 빈약한 베트남 상황

안전하고 적절한 집에 거주하는 것은 인류의 기본 권리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불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택 정책으로 지불가능한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민간의 자금까지 활용하고 있지만,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스페이스워크는 이 문제에 주목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회주택을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토지' 입력하면 다양한 설계 대안과 플랜 제시

'스마트 설계 프로그램'은 토지에 맞는 다양한 설계 대안들과 함께 추정 공사비를 산출하여 사업성을 검토하는 프로그램으로, 투자자는 어느 대상지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쉽고 빠르게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들과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적절한 가격에 사회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다.

'스마트 설계 프로그램'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쉽고 빠르게 사회주택 공급을 확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베트남 사회주택 정책은 사업적으로는 공사비 절감이, 건축적으로는 고온다습한 기후를 극복할 통풍 조건이 중요하다.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최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스페이스워크는 투아티엔 후에성(Thừa Thiên–Huế Province) 산하 후에성 계획연구소와 MOU를 맺고 정책, 건축 등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다.

보다 넓은 세상에 닿을 수 있게 해준 KOICA CTS 프로그램

스페이스워크는 KOICA의 창의적 가치창출(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 2기로 선정됐다. KOICA의 도움을 받아 기술이 정확한 장소에 쓰일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으며, 이와 연관된 다양한 전문가를 소개받았다. 스페이스워크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연구한 혁신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계획이다.



01 Dang Xa지역의 사회주택을 방문하였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서종관 매니저, 네 번째는 조성현 대표.
02 후에성의 사회주택을 답사하여 거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글 조성현(스페이스워크 대표)
만화 홍세훈 작가

SDGs 13

SDGs 13번째 과제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지구촌의 당면한 공동숙제
건강한 지구 위한 '국제 공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3번째 과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이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기후변화의 정의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지역적인 기후의 변화를 뜻하며, 주로 지구온난화를 가리킨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계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급증한 것이 온난화 현상의 원인이라고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파리협정과 SDGs 13'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했다. 그 시작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이었다. 협약 체결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공헌이 컸다. IPC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축'과 '적응'의 개념을 제시했다. 감축은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며, 적응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및 기술 이전 등을 언급하고 있다.

파리협정 체결 두 달 전(2015년 9월), 미국 뉴욕 UN본부에서는 제70차 UN총회 UN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됐다. 해당 의제에서 제시한 SDGs 17개 목표 중 13번째가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다.

SDGs 13번째 목표의 첫 번째 세부목표(13.1)는 기후변화에 해당되는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다. 두 번째 세부목표(13.2)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한 적응 및 감축 전략 수립'이다. 이와 더불어 세 번째 세부목표(13.3)는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이며, 끝으로 '취약계층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관련 계획·관리 역량 제고 지원(13.b)'과 이를 위한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재원조성(13.a)'이 포함된다. 이 세부목표들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도 상응한다.



KOICA CCD(기후친화개발: Climate Compatible Development)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는 SDGs 13번째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파리협정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OIC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6년간(2010~2015) 기후변화 적응에 3530억 원, 기후변화 감축에 2201억 원 가량을 투입했다.(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통계 기준)

KOICA는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 논의 동향에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 및 감축 사업,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기후재원 활용으로 구성된 전략목표를 설정했다. 세 가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기후친화개발(CCD)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SDGs 13번째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OICA는 파트너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형 사업, 민관협력 사업, 초청연수 사업 등 기존 사업 형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한편, 혁신적 개발재원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신기후체제(파리협정):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

글 이길석(사업전략실)

SDGs 14

SDGs 14번째 과제
'바다와 대양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전'

지구 환경의 뿌리
바다를 지키자

바다는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구 환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 전체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인류의 생활공간이자, 수산물 등 식량자원, 에너지, 자원 공급처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양식, 조선 등 해양산업이 발달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많은 목표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바다와 대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본다.





'바다와 대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용이냐 보전이냐?

인류는 바다와 해양에 기대어왔지만,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눈을 뜬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어족자원 남획, 해양산성화, 부영양화, 미세플라스틱 오염 등 많은 문제에 대해 국가별로 또는 전문가 집단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이론이 존재하며, 정확한 현상 이해와 해결책 제안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기후변화나 육상 생태계에 관한 주제에서는 생태계 보호와 시급한 행동을 우선시했다면, 바다에 관한 주제에서는 해양의 이용과 보전 개념이 병존하고 있다.

KOICA,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 양식 성공 등 다양한 노력

한국은 세계 수위권의 수산양식산업을 가지고 있고, 일본과 함께 1인당 수산물 소비가 세계 1~2위를 다투는 국가다. 건강한 바다를 유지하는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생선 중 하나인 대구는 남획으로 한국 연안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복원사업을 통해 회복되고 있다. 세네갈산 조기, 페루산 오징어, 칠레산 메로는 한국인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지 오래다.
우리 해양과학자들은 건강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축적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런던협약 국제해양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건강한 해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도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 양식을 성공시키는 등 다양한 수산기술 이전 사업 ▲카리브해 해안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해안침식 모니터링 사업과 같은 공동연구 사업 ▲수산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장학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류가 우주보다도 바다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말이 있다. 바다와 해양은 기존에 환경문제의 하나로 여겨, 개별국가 차원에서 이해하고 대응했었다. 유엔(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기후변화, 환경과 독립된 주제로 해양이 다뤄진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국제사회가 새롭게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글 장봉희(중남미실 과장)

SDGs 15

SDGs 15번째 과제
'육상 생태계 보호'

보노보 침팬지를 살리려면? 동물원보다 생태계 보전이 중요

인류는 환경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다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비극을 경험했다. 과거를 교훈 삼아, 오늘날에는 경제와 환경을 분리하지 않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여겨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새롭게 자리잡고 있다. 유엔(UN)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육상 생태계 보호'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5번째 과제로 채택했다. 우리에게 닥친 생태계의 위협과 그 해결 과제에 대해 알아보자



"지속가능한 보전 메커니즘 개발해야"

생태계란 사람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생명과 그를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관계다. 사람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공기, 물 등 주변환경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에 생태계가 지금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인류는 환경보다 경제적 풍요를 우선시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다가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현 상황으로는 인류가 얼마나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림수산 개발 방향이 바뀌어야 육상 생태계도 보전

과학자들의 우려에 힘입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이 채택되었고, 이로부터 20년 뒤인 2012년에 리우+20* 회의에서 지속가능성과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 회의에서 과학자들은 생물다양성 격감이 식량 안보, 영양과 물 공급,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구적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생태계 서비스 체계가 붕괴될 경우 인간의 생존도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글로벌 목표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인식과 실행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수산 관련 국제개발협력도 여전히 환경 부하를 많이 일으키는 화석연료와 농자재를 투입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사업 위주로 실행되고 있다. 지역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리우+20: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92 이후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환경 관련 유엔정상회의.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CSD)'라고도 함



KOICA는 FAO 및 과테말라 산림청(INAB)과 공동으로 농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의 토종 생물자원을 보존하면서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소농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KOICA, 사회생태적 ODA 사업 브랜드 육성

한국은 과거 산림녹화, 산촌개발 등을 통해 지역 개발과 산림 보전을 균형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 메커니즘을 확립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자연보전 지역 내에서의 보전 활동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 인근 농산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의 야생생물이 농경지에서 생애의 일부 기간을 지내며 서식하기 때문에 농경지 토양과 경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보전 방식의 농산업은 개발도상국 소농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 지원 활동과 병행돼야 한다. 농민들에게 보전활동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은 높여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농산어촌 마을 주민, 농경지 및 이를 둘러싼 인근 보전지역의 자연자원을 하나의 사회생태적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복원력을 유지 ·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의 농촌개발 ODA 사업은 대부분 지역주민, 소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농촌 주민이 생태계 보전에 직접 참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 보전 ODA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경험과 사업 이해도는 충분히 갖추어졌다. 이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 소농 중심의 마을 공동체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생태적 ODA 사업'을 브랜드로 육성함으로써 SDGs 15번째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야 할 때이다.

글 이민호(경제개발실 농업전문관)

코이카의 26년 브랜드 파워 'ODA 플랫폼'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7년 4월호 '코이카 이야기'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704/content1.php?code=201704_010101

개도국 돕는 현장에 국내 기업과 청년 현지 동반 KOICA의 26년 브랜드 파워 'ODA 플랫폼'

현재의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기까지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KOICA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올해로 26년째를 맞은 KOICA의 차별화된 'ODA 플랫폼'을 조명한다.



KOICA 전신 해외개발공사,
50년 전 광부 · 간호사 파독

79달러.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이다. 한국전쟁 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상 노동력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해 1963년부터는 광부 7000여명을, 1966년부터 1976년까지는 간호사 1만 여 명을 독일로 파견했다. 이들은 서독 각지의 광산과 병원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에 5억 달러를 송금했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당시 인력을 직접 모집, 선발하고 독일로 보냈던 한국 해외개발공사가 바로 1991년 창립된 KOICA의 전신(前身)이다.

대학 · 시민사회단체 ·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 선도

한국해외개발공사는 이제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 'KOICA'라는 이름으로 의료,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진행 중이다. KOICA는 2012년 8월 국내 최초로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과 학계를 아우르는 민간협력조직 개발협력연대(DAK)를 출범시켰다. 이곳에선 KOICA를 중심으로 287개 기관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하며 개발협력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취업률 100%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DAK 회원사 중 한 곳인 LG는 2014년 11월 코이카와 협력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전기전자 특화 직업학교를 설립해 무료로 수리교육을 진행해왔다. LG전자는 매년 서비스 명장을 파견해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두바이에 연수를 보내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직업훈련학교 부문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희망직업훈련학교. 이번 1회 졸업생 64명 중 대부분은 LG전자 아랍에미리트 서비스법인, 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과 IT 기업 등에 입사했고, 나머지는 창업을 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희망직업훈련학교는 DAK가 추구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준 모범사례다. LG는 전자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었고 코이카는 현지 정부의 문제해결 노하우를 지녔기에 설립 초기 내 · 외부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01
(왼쪽)고된 작업 후 휴식을 취하는 파독 광부들. (오른쪽)선발된 파독 광부를 위해 해외개발공사에서 발행한 안내서.
02
루미르 박제환 대표가 2016 CTS 피칭 경연대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 중이다.
03
에티오피아 'LG-코이카 희망직업훈련학교'의 LG전자 서비스 명장 학교 특강.

창의적 가치창출(CTS) 프로그램
아이디어 충만한 소셜벤처기업 육성

코이카가 2015년 시작한 창의적 가치창출(CTS ·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은 남다른 아이디어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소셜벤처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15곳의 예비창업기업과 창업 5년 이하 스타트업들을 선발해 지원했다. 코이카 CTS 사업에 선발되어 개발도상국 가정에 빛을 선물하고 있는 기업, '오비츠'는 대표적인 사례다.

초소형 검안기로 세상을 밝히는 '오비츠'

WHO에 따르면 전세계 3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각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90%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대개 눈 질환은 간단한 검안과 진료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개도국에선 전문인력, 인프라 부재로 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많다. 오비츠는 가격도 저렴하고 휴대도 간편해 개도국 보건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검안기를 개발했다. 오비츠가 개발한 검안기는 병원뿐 아니라 어디서나 이동하여 측정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을 통한 원격진료도 가능하다. KOICA는 오비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속가능성에 주목해 CTS 프로그램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베트남에서의 필드테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공공기관, NGO, 청년사업가들에게 다양한 사업 참여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개발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50년 전,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진출을 이어주며 경제성장 활로를 열었다면, 현재는 기업, 청년들의 진출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글 허현화(인턴기자)
사진 플랜한국위원회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 순직한 故 나현 팀장 이름으로 케냐에 '나현 스쿨' 들어서다

지난 3월 3일 아프리카 케냐에 민간인의 이름을 붙인 최초의 학교가 세워졌다. 바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직원 나현 팀장의 이름을 딴 세인트 가브리엘 나현 스쿨. 세인트 가브리엘 나현 스쿨은 케냐 · 에티오피아 ·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국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지난 2013년 4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나현 팀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KOICA,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유가족 후원금으로 완공되었다. 그 따뜻한 스토리를 전한다.


01

케냐 단도라 빈민지역에서 준공식

나현 팀장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다. 생전에 현지에서 교육 사업이 시작되면 직원들 대신 직접 방문할 정도로 아프리카를 사랑했다. 특히 전쟁과 기아 문제로 둘러싸인 아프리카 땅에 희망을 밝힐 것은 오직 교육이라는 신념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나현 스쿨은 이러한 나현 팀장의 아프리카에 대한 헌신과 애정이 담긴 곳이다.

2009년에 개교한 세인트 가브리엘 초등학교는 단도라 슬럼 지역에 위치했다. 단도라는 빈민 지역으로, 나이로비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하치장을 중심으로 조성된 집성촌이다. 주민 대부분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지역 내 중등학교 진학률은 38%에 불과하다. 학업포기율이 높고 적절한 시설 부재로 청소년 범죄, 탈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나마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초등학교가 운영되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학교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KOICA 민간협력 사업으로 효율성 높여

나현 스쿨 사업은 교사 지원, 아동권리 인식 함양으로 구성됐다. 4층 규모의 '나현 스쿨' 신축과 함께 교사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사회개발 인식(아동권리 인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명은 2009년 개교한 '세인트 가브리엘 스쿨'의 명맥을 잇는 것이다. 새로 지은 학교에서는 단도라 지역 학생 400여명(11학급)이 공부할 예정이다. 이 학교에는 현재 여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나현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자기관리와 시간관리 그리고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여성 리더로서의 잠재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세이프 클럽'을 통해 고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권리 교육, 약물남용 예방 인형극 공연 등을 진행한다.

나현 스쿨은 KOICA 민관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민관협력 사업의 목적은 개발협력의 주요 수행 주체로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별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파급 효과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빈곤 퇴치 및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영리 시민사회단체(CSO) 및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파트너 기관의 전문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지역 주민의 인간 기본생활 욕구(BHN · Basic Human Needs) 충족과 지역사회 자립적 발전, 개발도상국 고등교육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KOICA와 민간 파트너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양 파트너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02



03


04

01, 02
미래 여성 리더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나현클럽' 학생들.
03
세인트 가브리엘 '나현 커뮤니티 센터' 완공식 현장.
04
완공된 '나현 스쿨'의 모습.

글 박지현(인턴기자)

INTERVIEW

“이 학교에서 제2의 오바마 탄생을 기대합니다”

‘나현 스쿨’ 준공식 참석한 유현정 시민사회협력실 직원



Q_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OICA 시민사회협력실에서 근무하는 유현정입니다. 2013년 10월에 입사하여 줄곧 민관협력 사업 부서에 있었으며 주로 농림수산 분야의 사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교육 분야 사업을 담당하여 나현 스쿨 사업도 지원했었는데, 이런 뜻깊은 사업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Q_나현 스쿨은 ‘케냐 도시 취약계층 아동의 양질의 초등교육 보장 및 보호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됐는데요. 어떤 계기로 진행하게 됐나요?

“보통 KOICA 사업은 공모(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을 하는 방식)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하게도 나현 팀장의 유가족 측에서 먼저 사업비 기부의 뜻을 밝혀주시면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KOICA 측에서도 팀장님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뜻을 함께한 굿네이버스와 수시 발굴 형태로 2015년에 착수하게 됐어요. 수시 발굴형 사업은 NGO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공모와 다르게 혁신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을 KOICA가 함께 발굴하는 사업 유형을 가리키는데, 지금은 혁신사업실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Q_그렇군요. ‘케냐 도시 취약계층 아동의 양질의 초등교육 보장 및 보호체계 구축 사업’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가요?

“단도라 지역의 아동들은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했어요. 교과목은 다른 학교들의 일반 정규 과정과 같은데, 나현 스쿨만의 특색 있는 장점은 동아리 활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학생들의 리더십을 양성할 수 있는 ‘나현 클럽’과 남학생들을 위한 ‘세이프 클럽’, 2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연극이나 춤, 노래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배운 것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Q_사업이 진행된 단도라 지역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단도라 지역은 쓰레기 집하장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슬럼으로 분류되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 들어가면 건물들도 많이 낡았고 쓰레기도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어요. 실제로 길을 걷다 보면 양쪽으로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돼죠. 그래서 위생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정말 심각했어요.
나현 스쿨은 그런 단도라 지역에 있던 세인트 가브리엘 유스 센터를 새로 단장해 세운 학교예요. 유스 센터는 학교라기보다 철제 슬레이트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어요. 거기에서 학생과 교사 몇 명이 모여서 수업을 하는 정도였어요. 환경적으로도 열악하니 아동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죠.”

Q_준공식에 다녀온 소감은 어땠나요?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로서 지난 3월 3일 준공식에 다녀왔어요. 사실 나현 팀장을 실제로 만나보진 못했지만 워낙 좋은 분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나현 팀장님 어머니를 보면서도 많은 걸 느꼈어요. 딸의 이름을 건 학교를 세워서 딸의 헌신을 기리고자 하신 점이 크게 다가왔어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나현 스쿨 4층에 올라가면 팀장님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나현 팀장 어머님이 사진 속 팀장님을 보시면서 ‘예쁘다’ 한마디 하시고는 자리를 못 떠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마음을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그때만큼은 굉장히 숙연해지고 팀장님도, 어머님도 위대해 보였어요.”

Q_이번 사업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프로젝트 사업은 보통 인프라가 풍부한 정부 간 사업인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접근성이 높은 도시에서 사업을 벌이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정부의 협조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민관협력은 정말 ‘이런 곳에서도 사업이 가능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악한 지역에서 사업이 이뤄져요. 실제로 오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수급이나 소통이 어려운 곳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나 사업이 완성되고 종료되었을 때는 일을 끝까지 해냈다는 보람이 있어요. 정말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갔구나 하고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팀장님의 유가족분들이 민관협력 사업을 택한 것도 따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아이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준공식 현장에 다녀오니 사업이 잘 완성됐다는 생각에 안심이 됐어요. 교육의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데, 팀장님의 뜻까지 더해지니 사업이 더 빛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01, 02
쓰레기로 뒤덮힌 단도라 지역.

Q_나현 스쿨을 통해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나요?

“특별히 인상 깊었던 축사가 있었는데요, 권영대 케냐 대사님이 “나현 팀장님의 정신과 함께, 이런 좋은 학교를 발판 삼아서 제2의 오바마 같은 리더가 이곳에서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현 스쿨에서 나현 팀장님의 정신을 이어갈 정말 좋은 리더가 나오면 좋겠어요. 나현 스쿨은 그런 리더를 탄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잖아요.”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하기 어려웠던 단도라 지역 아이들. 나현 스쿨 덕분에 단도라 지역 학생 400여명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이는 나현 팀장의 아프리카에 대한 숭고한 사랑뿐 아니라 유가족의 적극적인 지원 및 여러 기관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나현 스쿨이 교육을 통해 아프리카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나현 팀장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